



역시 정치 불사조 오자와 '1심 무죄' 총리 도전 나설 듯

‘영원한 막후 실세’로 불리는 일본 정계의 거물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69) 전 민주당 대표가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핵심은 자신의 정치자금 관리단체 리쿠잔카이(陸山會)의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 허위 기재에 오자와가 관여했는지였다.

도쿄지방법원은 “오자와 전 대표가 허위 기재를 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오자와의 손을 들어줬고, 오자와는 “법원의 양식과 공정성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기소돼 10월부터 재판을 받던 오자와는 정치적 면죄부를 받았고, 일본 정치권은 여야 없이 요동치고 있다.

먼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정치 생명을 걸었다”며 추진 중인 소비세 인상 논의는 악재를 만났다. 오자와는 그동안 “증세는 민주당의 2009년 총선 공약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자신에게 내려졌던 당원자격 정치 조치가 조만간 해제되면 오자와는 100여 명에 달하는 자파 의원을 앞세워 더욱 격렬한 반대론을 펼 전망이다. 증세를 좌절시켜 노다 총리를 정치적으로 무너뜨린 뒤 총리직이 걸려 있는 9월 당 대표 선거에 직접 뛰어 들 가능성이 크다고 일본 언론들은 분석한다. 40년이 넘는 정치 역경 속에서 김메이커 역할을 주로 맡아온 그가 1인자에 도전하는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이다. 오자와는 최근 “하늘의 명이라면 어떤 역할이라도 하겠다” “최후의 봉사 하고 싶다”며 총리직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야당인 자민당은 “소비세 인상 문제에 대한 협조를 받으려면 증세 반대파인 오자와와 결별하라”며 노다 총리를 압박하고 있다. 그래서 노다와 오자와의 갈등이 증폭될 경우 여야가 흩어 모이는 정치권 비행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재판을 앞두고 법원 주변엔 방청권을 확보하려는 오자와 지지자들이 새벽부터 몰려들었고, 방송사들은 헬기까지 동원한 뉴스특보를 편성해 이번 재판에 쏠린 관심을 실감케 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치솟는 부인들 인기 ... 오바마·롬니 “옴메 기죽네”

눈길 끄는 ‘백악관 안주인’ 경쟁 미셸, 인지도 높아 앤 크게 앞서
강그리치는 내주 경선포기 할 듯

11월 대선을 겨냥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 간 격돌이 공식화되고 있다.

오바마 재선 캠프의 책임자인 짐 메시나는 25일 오후(현지시간) 지지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내달 5일 오하이오주와 버지니아주에서 공식 선거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대통령 부인인 미셸 오바마도 참석한다. 현직인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선거자금 모금행사나 정

책설명회 등 비공식적인 선거 운동을 해왔다. 오바마 캠프가 첫 유세지로 오하이오와 버지니아를 선정한 건 두 지역이 11월 6일 대선을 앞두고 대표적인 스윙스테이트(경합지역)로 분류됐기 때문이라고 캠프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반면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인 라인스 프리버스는 25일부터 롬니를 “공화당의 예비 지명자”로 호칭했다. 롬니를 공화당의 후보로 대접하기 시작한 셈이다. 롬니의 선거캠프는 앞으로 당 조직인 공화당 전국위원회와 함께 통합 선거운동을 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런 흐름에 밀려 공화당의 경선 후보인 뉴트 깡그리치 전 하원의장은 다음 주 중 워싱턴에서 경선 포기를 공식 선언할 것

로 전해졌다. 깡그리치의 중도 포기는 24일 델라웨어·뉴욕 등 5개 주 경선에서 큰 차이로 롬니에게 패배한 게 계기가 됐다. 깡그리치가 하차할 경우 경선에는 론 폴 하원의원만 남는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는 오바마 대통령과 롬니 전 주지사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와 앤 롬니의 호감도를 조사해 발표했다. 결론은 부인들의 인기가 각각 남편을 능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셸 여사의 지지도는 69%로, 남편인 오바마 대통령보다 무려 13%포인트가 높았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24%로 남편(40%)보다 16%포인트 적었다.

앤 여사의 경우도 ‘호감이 간다’는 응답이 40%로 롬니 전 주지사(35%)보다 5%포인트나 높았으며, ‘좋아하지 않는다’는 응

답은 30%로 남편보다 17%포인트가 낮았다. 호감도 조사에서 앤의 지지율이 미셸보다 낮은 것은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지 오래되지 않아 인지도에서 뒤지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며 유보적인 답변을 한 비율이 30%로 미셸의 7%에 비해 크게 높았다.

이번 조사에서 올해를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응답자의 65%가 ‘호감이 간다’고 답해 정치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4년 전인 2008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클린턴 장관은 호감이 간다(44%)는 응답보다 비호감(54%)이라는 평가가 더 많았었다.

워싱턴=박승희 특파원 pmaster@joongang.co.kr

IHO ‘동해 표기’ 결론 5년 뒤로 미뤄

(국제수로기구)

일본해 단독 표기 연장은 막아

제18차 국제수로기구(IHO) 총회가 26일(현지시간) 동해 표기 문제에 결론을 내지 않은 채 마무리됐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총회가 국제 바다 지명 해도집 《바다와 해양의 경계》(S-23) 4판 개정판 동해 표기와 관련해 한 일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다른 일정을 감안해 서둘

러 안전 논의를 종결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1929년 이래 ‘일본해’로 단독 표기돼온 지명을 이번에 ‘동해/일본해’로 병행 표기하려던 우리 정부의 계획은 일단 좌절됐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는 “목표는 이루지 못했지만 ‘일본해’ 단독 표기를 연장하려던 일본의 제안을 부결시킨 것은 큰 성과”라고 말했다. 25일 회의에서 일본은 “1953

년판(3판)의 유효성을 재확인하자는 안, 즉 ‘일본해’ 명칭은 그대로 둔 채 개정판을 내자”는 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77개국이 반대 또는 기권했다. 국제 다자회의 성격상 한번 부결된 ‘일본해’ 단독 표기 개정안은 향후 IHO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당국자는 “연안 각국이 만들어준 자료를 토대로 운용되는 전자 해도 개발로 60년 이상 개정판을 내지 못한 S-23은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제기됐다”며 “2017

년 차기 총회에서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총회에서 ‘동해/일본해’ 병기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찬성표만 집계하는 표결 여건을 고려해 승리가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전략적이라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백지아 외교통상부 국제기구국장 “일본의 단독 표기 제안이 부결되고 한국 입장을 지지하는 여론이 더 힘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sujeong@joongang.co.kr

경기 파주 DMZ 토지매각 공고

— 한국자산신탁 자금관리 업무수행 —

◆ 매각 토지 개요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
지목	전, 답
매각가	3.3㎡ 당 29,000원 ~ 33,000원
접수방법	청약 선착순 수의계약
청약계좌	예금주: 한국자산신탁(주) 우리은행, 1005-501-954373

경기새마을영농조합에서 경기도 파주시의 접경지역 토지를 특별 매각한다.

매각 토지는 민통선과 DMZ 등을 대상으로 한 “접경지역지원 특별법” 등으로 인해 관심이 집중된 바 있는 지역 중 ‘통일한국’의 중추를 담당할 파주에 위치하며, 현재 군사보호구역으로 토지의 사용과 행위를 하지는 못하지만, 개성공단, 정상회담 등의 이슈가 들 때마다 화제가 되던 지역인데다 9년만의 허가지역 해제 등의 이유로 멀지 않은 미래의 가치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여서 실제 투자자의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계약 시 한국자산신탁에서 자금관리를 담당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완료시까지 매매대금을 보관하며, 필지당 단독 등기를 원칙으로 매각한다.

지정된 한국자산신탁의 계좌로 청약금 100만원을 입금하고 선착순으로 필지를 배정 받아 계약 유무와 잔금 일을 지정하며, 미계약 청약금은 전액 환불된다.

농업회사법인 경기새마을 | 02)5577-005

고부가가치, 고수익 창출

153표고버섯 농장

재배동 분양 (3년 위탁영농 재연장 가능)

년 임대수익 **15%**

매월 187,500원 확정지급

▶표고버섯 재배 관심 있으신 분. ▶안정적 임대 고수익 원하시는 분.

재배동 분양금
1,500만원 (배지포함)
수익금 보장
지급 보증서 발행(금융권)

▶금일 계약자, 버섯 5kg / 간척지 쌀 20kg 증정

상담문의 **1588-1553**

■농협: 355-0015-2224-63 ■예금주: 농업회사법인(주)현대팜스피어

영어신문 전문영어

1:1 원어민 영어뉴스토론

영어신문 토론품 수업

평가시험 과정운영

일반 영어회화

writing 첨삭지도

무료레벨 테스트

www.jdphone.com

문의 1544-9407

우리 아이들의 위대한 미래가 되어 주세요

We Start 02.318.5004 westart.or.kr

교수초빙

1. 초빙 전공분야 및 인원

초빙직급	초빙학과	전공분야	인원
전임교원 (정년트랙 조교수)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실천 또는 사회복지정책	1명

* 산업체경력 10년 이상자는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초빙할 수 있음

2. 서류 제출 및 방법

① 제출기간 : 2012.04.30(월)~05.15(화) 까지

② 제출처 : 거제대학교 교무처 교원인사담당

3.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대우조선해양그룹
거제대학교
www.koje.ac.kr